

# 침체된 양계산업의 활성화 방안

- 양계인 스스로가 단합을 통한  
생산조절로 자신의 업을  
지켜나가야 -



吳世正

(건국대학교 교수, 전 대한양계협회장)

79年 후반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양계산업의 침체된 불황은 2년반을 지속하고 있는바 이의 원인을 먼저 고찰함으로써 그 대책과 활성화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편견일 수도 있으나 열거하고자 한다.

1. 70년 초에 대호황이 73~74년에 유류파동과 사료값의 앙등으로 극심한 불황으로 거의 도산되었던 양계 업계가 75년부터 호황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로인하여 규모의 확대와 수적인 증대로 거의 전업내지 기업으로 發展되어 生産과잉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2. 79년 말부터 정치불안과 경제침체로 소비위축을 가져와 양계산물의 값은 폭락으로 불황을 맞게되기 시작하였다.

3. 그러나 양계업계는 축적된 재력과 직업인으로서 경영개선과 기술향상으로 끈기있게 지속하게 되었으며

4. 또한 불황 후에 호황을 예상한 경험으로 미루어 닭 수의 감소없이 지속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5. 사회불안과 경제의 침체는 장기화됨으

로서 소비의 위축은 계속되고 있고

6. 부화업자의 종계 입식과다와 초생추의 생산과잉 공급이 지속되었다.

7. 산란계의 환우로 재활용율이 많아져 초생추의 부화수는 적으나 수적인 증대를 가져왔으며

8. 사료공장의 과도한 경쟁으로 외상을 2~3개월씩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한편 외상 빛 때문에 중단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계속하고 있는 업자도 상당수가 있다.

9. 필사적인 불황후에 호황을 예상한 경쟁과 투기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현상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양계인 스스로 져야할 일이나 아쉬운 것은 관계당국과 정책집행당국의 무관심과 방관적인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新聞)이나 방송에서 살인, 강도, 교통사고 등은 대대적으로 연일 취급하여 알리면서 100만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2년반씩이나 지속되고 있는데도 본체 만체 방임하고 있는지? 국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계당국에서는 수입최고기를 싼 값으로 포장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미명아래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면서 양축가의 어려움을 방임 할것인가? 묻고 부르짖고 싶은 심정이다.

이 모두가 누구를 탓하리요? 저 못난 것과 제 잘못을 먼저 깨달아야지!

우리 양계인은 합심 협력하여 단결하여야 합니다. 자기만 잘 살겠다고 잔폐나 투기심을 버리고 먼저 단결하여 오래동안 침체되고 있는 양계산업을 활성화하고 안정된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것이 우선 국민의 도리인 줄 알며 편견과 사견이 될지모르나 당면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니 찬의가 있으면 적극 실천하길 부탁하는 바이다.

#### 1. 속히 수적인 감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값의 하락은 소비에 비하여 과잉이기 때문에 우선 생산을 줄이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전에 경험한 바이지만 입란, 입추를 중단하자고 협회에서 결의하고 실천하자니까 일부에서는 이때 입추하면 돈을 번다고 반대로 역행하는자를 보았다. 불신감의 풍토속에 오히려 수적인 증대가 먼저 두려워진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양계인은 노계의 환우보다는 능력이 낮은 것은 무조건 도태하여 공히 약 20%정도 수적인 감소를 가져옴으로서 계란의 생산조절을 통해 제값을 받게 되고 육계도 입란, 입추를 약 30% 더 감소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먼저 부화업자가 입란을 줄이고 또한 사육업자도 당분간 입추를 중단하길 바란다.

누가 하길 바라지말고 전양계인이 합심 단결하여 생산을 줄여 조절하는 길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날 양계업계는 불황이면서 사료의 소비량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때 답변이 아주 궁색한 바 있었다. 이제 한계선이 왔다

고 본다. 82년도 경제전망이 어렵다고 하니 주저말고 과감히 하루속히 감축하는길이 현명한 일이라 사료된다. 다시한번 생산을 20% 이상 감축할 것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 2. 단체기능이 강화되어 행정이나 정책임인자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못지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말과 같이 100만 양계인이 합심 협력하여 단결만 된다면 무슨 일이 안될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권익을 보호받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참여와 단결로서 해결해나가야 될 줄로 안다. 사리사욕이나 잔폐를 부리지말고 공생, 공영, 공존, 공익을 위하는 공지와 자부심을 갖는 문화인 아닌 선진국민이 되도록 모두 앞장서 단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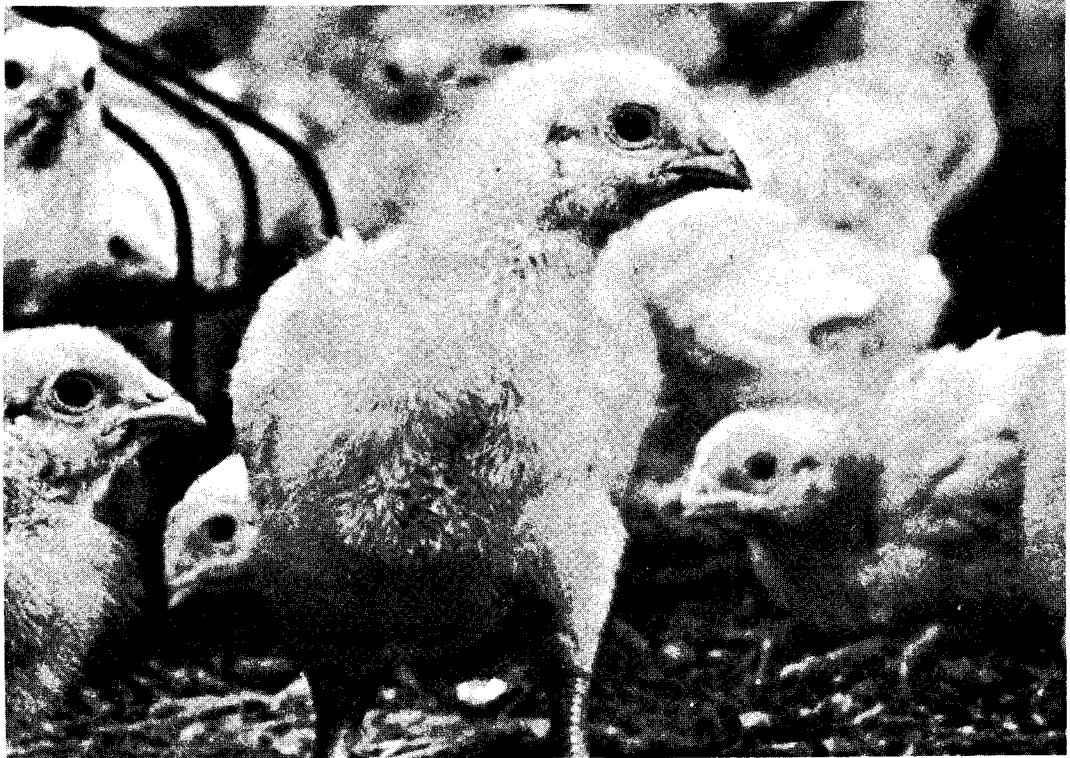
협회는 개인의 협회가 아니고 특정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중론을 모아 우리가 모두 잘되고 잘 살아 보자는 공익단체이니 빠짐없는 참여와 결의된 사항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협회의 기능이 강화됨으로서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생기며 또한 행정당국의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계인들이 협회에 관심이나 참여도가 어떠한지? 협회의 기능은 어느 정도인지?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에 앞서 양계인 스스로 반성과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자기가 무덤을 파고 먼저 무덤에 들어가는 꼴이며 들어누워서 침을 뱉는것과 같이 오늘날의 현실은 양계인 스스로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협회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참여와 협력, 그리고 단결된 힘으로 서로 해결하고 실천되는 것만이 양계산업의 안정과 활성화되는 지름길이라 사료된다.



### 3. 관계당국의 관심제고를 촉구

새시대 새역사를 창조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선도적 역군인 행정당국과 정책을 입안하는 공인들이 보다 더 현실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능동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여야 한다.

양계업계는 좋게 말해서 자원에 맡기는 경향이 나쁘게 말하면 무관심과 서족 취급을 당하는 감이 없지 않다.

2년 이상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데 방임하고 있다니? 낙농이나 양돈분야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대책을 하고 있으면서 어찌 양계분야는 도외시하는 경향인지? 의문이나며 앞으로 자연에 맡겨 양계업자들이 모두 도산되어 계란값이 폭등되면 외국에서

난분을 수입할 생각만 갖는지? 닭고기 값이 뛰면 닭고기까지 수입하여 먹일것인지? 의화가 남아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좋은 일이나 그렇지도 못한 일이고 보면 양계분야에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한이 없다.

행정당국의 보다 창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와 대책을 수립, 실천할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즉 행정 주도형이 불가피한 현 체제 하에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이 불가피한 일이라 하겠다.

행정당국에 장기적인 안목하에 바라고 싶은 것은

- ① 양계안정법의 제정 촉구
- ② 자율적인 양계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뒷받침 제정
- ③ 수급조절과 안정을 위한 양계농가의 등

특제 나가서는 허가 및 쿼타제로 강력히규제

④ 계란의 저장 및 가공시설의 지원과 육계산업의 계약에 의한 계약에 의한 계열화체제 확립으로 안정화 촉구

⑤ 계란과 계육의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촉진 홍보사업의 강화

⑥ 생산자 단체의 기능강화를 위한 법적 보장과 권한 부여

⑦ 생산성제고를 위한 지도강화

⑧ 이용과 가공을 위한 연구지원과 홍보강화

⑨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⑩ 행정기구의 확장(가금과, 중소가축과로) 이상과 같이 보다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과 행정에 반영하여 개선, 실천함으로써 국가산업의 기여와 발전을 가져오며 오늘날과 같은 불안은 없게되고 외화의 손실과 낭비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우선 관제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명감에 입각하여 처리함으로써 활성화와 안정의 길이 열릴 것이다.

#### 4. 유통개선과 소비촉진에 적극참여

항상 느끼고 부르짖는 말이지만 현재 양계산물의 유통체계는 과거와 조금도 다를바 없으며 전 근대적으로 되어 있어 항상 상인들에게 우롱당하고 있으며 때로는 소비의 위축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 없지 않다.

일부 생산자가 유통에 참여하여 관여하고 있는 양계업자는 불황을 느끼지 않고 잘 되고 있는 자가 없지도 않다.

현실 여건하에서는 양계업자가 직접 판매에 참여하고 직접 소비자와 관련을 맺는 운영체제가 불가피한 일이라 하겠다.

물론 선진국과 같이 수직적인 통합에 의한 계열화로 기업화하든가 또는 강력한 조합체제로 전문분업 분업화로 공동 경영이 바람직하나 현실 조합의 운영이 불신과 사리사욕때문

에 참된 협동조합체제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 하에서는 이론보다 현실 여건하에서는 부득히 각자가 유통 판매에 개입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채란업자는 계란 판매직매소나 가게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한개당 5~10원의 유통마진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공히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또한 가정에 침투하여 소비를 촉진 시킬수 있다. 흔히 계란을 볼때 생산자의 출하 값은 폭락이 되었는데도 소비자의 구매가격은 그대로있어 소비위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그리고 생산자가 저장시설을 갖추어 1~2개월은 간이 저장하여 수급조절을 할수 있는 기능이 또한 있어야 한다.

값이 오른다고 하면 출하를 기피하여 폭등을 부채질하고 또한 값이 내릴 징조가 보이면 서로 출하를 촉구 덩핑함으로써 반대로 폭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 모두 생산자의 잘못이다. 그러니 앞으로 생산자가 반드시 유통과 저장, 판매에 개입하는 길만이 유리한 경영이 될 것이다.

육계산업은 생계상인에게 계란상인보다 더욱 피해가 많으며 농락과 우롱을 당하고 있는바 더욱 유통에 관여하여야 한다.

과거 누차 도계유통을 강조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인식의 부족과 오랜 인습 그리고 생계상인들의 생업과 관련되어 이루어 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일년에 수차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가격의 변동은 생산조절에 큰 원인도 있지만 중간 상인들의 농락 그리고 행정당국의 일관성 없는 단속 규제에도 있다고 본다. 행정당국의 대책없는 단속, 심심하면 단속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많은 사람이 울고,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76년부터이니 왜? 확고한 신념과 방향이 없이 우왕 좌왕하고 있으며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관제당국에게 묻고 싶으며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소신과 신념이 없는 서울시의 일관성없는 행정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 육계사육업자가 유통판매에 직접 참여 하지 않고는 불안과 손실은 불가피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니 생산자가 소비자와 직결되는 닭볶음탕집, 튀김집, 닭곰탕집, 닭소세이지, 부분육판매점 등 각각 특수 전문집을 개설하여 소비자에게 값싸고 손쉽게 구입하여 먹을 수 있도록 판매점의 확대가 시급하다.

요사이 닭고기를 사서 먹자면 값도 비싸지만 판매점이 적음으로써 소비가 적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손쉽게 어디서나 값싸게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판매점이 확대 개설되어야 하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라디오, TV, 신문, 잡지, 포스타 등을 통해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도 자기의 생산품을 소비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포스타, 매스컴을 통한 홍보사업이 활발함을 볼수 있다. 이 모두누구가 해줄 때를 바라지 말고 같이 모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전양계인이 서로 양보하고 겸손한 정신자세로 협력하고 참여하며 단합함으로써 침체된 양계산업을 하루속히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행정당국의 지원과 보호, 권익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하루속히 생산숫자를 줄여 우선 값을 올리도록 하며 소비촉진과 확대를 위한 유통에 참여와 홍보강화 그리고 단체기능에 강화로 공익을 보호받으며 전전하고 안정된 산업으로 육성 발전되도록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법적 뒷받침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본다.

침체된 양계산업이 하루속히 활성화되어 양계인의 주름살이 펴지고 화기 애애한 희망의 새해 햇빛과 더불어 비치기를 기원하면서 양계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행운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제 1 지역 서울 613-7434  
제 2 지역 의정부 2-4614  
제 3 지역 (경기)광주2018  
제 4 지역 수원 5-5961  
제 5 지역 전안 2-9133  
제 6 지역 청주 2-2835

가축인 양계인 지킴이나  
저장업에 하지  
않으라!!

#### ☐ 생산품목

- 양계용 ● 양돈용 ● 낙농용
- 비육용
- Pellet 사료—육계후기  
젓먹이돼지, 어린송아지,  
고깃소후기.



#### ☐ 곱표 대한사료의 특성

- 아미노산 수준의 강화
- 에너지 단백질 수준의 강화
- 각종 미량원소, 비타민의 강화
- Ca, P의 비율의 적정화
- 열화플린 첨가의 강화
- 높은 생산성 유지



#### ☐ 대한사료공업주식회사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TEL. 22-5336, 9031, 1171-7(2)